유해무
본회 연구위원, 목사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

예수님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길(道)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요 14:6).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마 11:27). 아들은 계시를 주시나, 오순절 뒤에 아들을 알 수 있는 계시는 성령이 주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主시라 할 수 없다(고전 12:3).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일차적으로 知的인 의미가 아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호4:6)고 절규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는 것은 기억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잊혀진 분이 되었다. 이는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지자의 절규이다(호4:1, 8:1 이하).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主知主義'에 근거한 절규가 아니다. 결혼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를 떠나는 행위가 행음이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

라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다. 구약에서 '알다'라는 말은 결코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떠나 지식이 없는 백성은 호세아가 부른 대로 '로암미'(호 1:9),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神지식은 언약 관계 안에서 여호와가 지니신 권리의 문제이다. 神지식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것이라"(호 13:4)는 제일계명의 주석이다. 언약에 합당한 삶은 여호와의 구원 행위와 그것에 근거한 여호와의 권리를 아는 것이다.

신약에서도 '알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지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말씀하신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 8:54-55; 즉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심으로, 그들은 '로암미'임을 동시에 밝히고 계신다. 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낸)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8:19).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 6:69; 이는 마 16:16에 해당된다)라고 고백한 대로 지식과 신앙은 거의 근접하고 있는 동의어이다.[1]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며, 이 점에서 모든 성도는 다 '신학자'이다. 칼빈(1509-1564)에게 있어서 지식과 경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경건이 없는 곳에 신지식(神知識)은 없으며(I,ii,1), 경건은 종교의 원천이다(I,vi,4).

---

1) 그러므로 칼빈이 신앙을 지식으로 정의한 것은 성경적인 탁견(卓見)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성부와 성자의 양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졌다." (III,ii,7) 그가 신앙을 성령의 사역으로도 계속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면, 삼위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곧 신앙이 신학이다.

신학의 방법: 기도와 전도

신학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 '안다'는 말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 곧 믿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성(性)적인 관계를 의미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비밀한 관계를 뜻한다(창4:25, 삼상 1:19, 마 1,25). 이런 '신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은 영생과 동일한 말이다(요 17:3; 8:54).

고대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앎, 신지식)이 全人적인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2] 그렇지만 신지식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믿음으로 받는 은사이다. 이 지식은 성령이 일으키신다(고전 2:11). 신지식은 우리에게서 발생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임한다. 우리가 신지식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휩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 주신다. 우리의 신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반응은 원초적으로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기도와 전도이다.

---

2) "This communion with God, symbolically focused in liturgy, is the primary locus of religious language for the Christian. Theological language belongs to the second order: it is the language of reflexion upon the primary experience. ... For reflective reason is part of God's endowment to humanity and must therefore be included in the total picture of human cummunion with God. The second-order activity of theology is therefore, at its own level, properly doxological: the theologian is truly theologian when, in his very theologizing, he is listening for the 'echo of a voice' and is contributing, even if indirectly, to the human praise of God. It is indeed a traditional dictum in Eastern Christianity that the true theologian is the person who prays", G. Wainwright, Doxology: the Praise of God in Worship, Doctrine, and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21. "기도는 여타 종교적 행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총체가 이루어진다", G. Ebeling, Dogmatik des christlichen Glaubens I (Tübingen, 1979), 208.

(1) 기도

일반 학문은 그 연구 대상을 객관화하고 대상화한다.[3]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제와 대화를 전제하며,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교제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분과 함께 사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심을 자기 계시라 한다. 지식은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앎이다. 지식은 지혜를 앎이며, 신앙과 상통하며, 신앙이란 대상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인격(지혜)에 대한 신뢰이다. 우리는 그 인격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9).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리스도이다(고전 1:24). 우리는 이 지혜를 성경에서 뵙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신다. 이 신앙을 통한 교제는 기도(예배)에서 잘 나타난다. 기도에서 우리는 대상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난다.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방편으로 삼아 우리를 찾아 오신다.

기도는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불러 감사하고 사귐이다. 구원받아 감사하는 자가 개별적인 自我로서 신앙의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 안에서 교제하는 방편이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다른 성도들과 남을 위한 기도(Fürbitte)도 가능해진다.

기도 중에서도 송영(Doxology)은 특별한 형태를 취한다(엡 3:14-19는 기도요, 20-21는 송영이다). 송영은 자신이나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이다. 이는 2인칭으로도 나온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 6:13, 시 119:12 참조). 그렇지만 송영은 대개 3인칭으로 나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창

3)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은 지식을 통하여 그 지식의 대상을 지배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지배와 탈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4:20),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눅 2:14),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 11:36하). 송영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신 영광을 찬송함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그 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송함이다. 야곱의 총애를 받지 못한 레아는 네 째 아들을 낳고서 비로소 그를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창 29:35)고 고백했다. 물고기 뱃 속에서 요나는 "나는 감사(찬송)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욘 2:9)라고 고백했다. 특히 시편에는 이런 송영이 더욱 빈번하게 나온다(시 28:6, 31:23, 66:20, 72:19, 144:1 이하). 하나님의 구체적 구원 행위를 감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송영이 터져 나온다(출 18:9 이하, 룻 4:14, 슥 11:5). 송영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6 상, 딤전 1:17, 계 7:12). 이 송영이야말로 신학이다. 삼위의 구원사역에서 구원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함이다. 나아가 이런 본문들에서는 구원 행위 전이나 후에도 하나님은 여상하시며, 거룩, 전능, 영광,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찬송한다 (창 24:27, 삼하 18:28, 왕상 1:48, 5:7, 대상 29:10 이하, 에스라 7:27-28, 시 119:12 이하, 144:1 이하; 눅 1:68, 고후 1:3, 벧전 1:3). 또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당신의 위엄, 지혜, 선하심과 은총을 계시하신다(시 8:2, 104:2-3, 148편, 계 4:11).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바 된 순간부터 삶의 의의와 목적은 찬송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시 150:6). 송영은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마 6:13), 이 나라 백성의 임무는 찬송이다(시 47:7-8). 이처럼 송영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그의 사역에 근거한 경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에 관한 송영도 나타난다(롬 9:5, 고후 11:31에서는 똑같은 표현으로 성부를 찬양한다; 엡 1:3-14).

송영에서 하나님이 '당신'에서 '그'로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나'가 '우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엡 3:14의 일인칭 단수가, 20절에서는 일인칭 복수로 나온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중의 '우리'도 송영에서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신다. 이 점에서 지극히 객관적인 표현은 '객관화'가 아니라, '자기 포기'이다. 송영에서 '나'는 제물로 바쳐졌다. 사실 송영은 찬미 제물이요 자기 포기이다.[4] 신학은 영적인 찬송의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드림이다. 신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리적인 감사제물이다.

우리는 신학이 송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은 찬미의 제사이어야 한다(히 13:15).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롬 11:33-35)

(2) 전도

나아가 먼저 계시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전도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1). 전도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동료 인간들을 향함이다.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전파함이다. 복음은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세계를 소유하려는 방편으로서의 말씀이다(마 28:18-20). 예수가 전도의 기초이며, 그의 이름으로 전도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행하신 구원이 동료 인간들에게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소유권 쟁탈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변증적이

4) 우리의 찬송 204장 3절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도 이에 해당되는 송영이다.

다(벧전 3:15). 이 전도 역시 큰 테두리는 송영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역사적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형성하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도는 들은 바 뿐 아니라, 체험한 바를 전한다.

그런데 전도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고전 15:3). '받다'란 전수 받는다는 뜻이요, 이는 다시 사도적 선포가 전수됨을 말한다. 이 선포가 전수될 때, 전수된 내용은 전통이 된다(딤전 6:20, 살후 2:15, 3:6, 고전 11:2). 전통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전통을 지키신다(딤후 1:14). 그렇지만 전수받은 자는 이 전통을 믿음과 사랑으로 '그 날까지' 지켜야 하며((1:12-13), 또 다시 전수해야 한다(딤후 2:2). 또한 위임받은 자는 이 전통을 순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이 전통을 성경은 '가르침을 받은 유전'(살후 2:15 롬 6:17, 16:17), 곧 교리라 부르기도 한다(딤전 1:10, 6:3, 딤후 1:13, 딛 1:9). 교리에 거하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요이 9). 교리는 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이다(유 3). 물론 교리는 직접적인 전도와는 구별되며, 그 객관적인 표현 방식에서는 송영과 비교된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하여 전통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 내용이 찬양의 재료가 되게 한다. 그럼에도 교리는 전도로서 동료 인간을 향한다.

교리의 특정 형태로서는 고백이 있다. 고백은 구원과 구원의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등의 호칭들로 인정함이다. 고백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나타난다. 아주 寫實的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고백이었다(마 16:16). 그런데 오순절 뒤에는 3인칭으로 되어 나타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 여기에서는 송영에서와 같이 고백자의 인격성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으나, 고백자의 인격이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안에 숨겨진다(예를들면 '예수쟁이'). 그리

하여 송영이 동료들을 향한 고백이 된다. 먼저 개인은 고백으로 교중의 고백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고백의 형태로 나타난 신학이 지닌 교회론적 모습이다. 더 나아가 불신자와 핍박자들을 향한 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는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선언한다(마 28:18).

고백에서 기도와 증거, 송영과 교리가 독특한 방식으로 통합된다. 고백에서 신적 '당신'이 언급되지는 않으나, 기도에서와 같이 그에게로 향하여 행해진다. 동료가 언급되지 않으나, 그들을 향하기도 한다. 교리처럼 서술식은 아니나, 교리의 핵심이 선언된다. 송영은 아니나, 구원 행위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는다. 이 모든 대답에서 궁극적으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이며, 하나님에게 고백적으로 위탁함이다. 이것들은 기초적인 신앙적 발언들이며, 이 모든 발언들을 합하여 '삼위 하나님에 관한 교리', 곧 신학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한, 논리성, 사변성, 사고 등도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후 10:5).[5]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제대로 갖추어진 신자가, 신학자가 되어 신'학'을 공부할 때, 그는 자신을 실현하며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를 기도로 부르며 찬양하고, 성자 안에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성령의

5) 경건은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은 지성적인 활동을 폐기시키지 않는다. 다만 칼빈은 맹목적인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인간적인 합리성의 한계를 알고서 인간 경험이란 모든 종류의 모순적 현실로 둘러쌓여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W.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61. 그리고 S.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Durham, NC: Labyrinth Press, 1991)을 계속 참고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의 역할 자체를 비지성주의적으로 무시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지성의 참된 위치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에 근거한 참된 신지식 없이는 지성의 역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신학에서의 학적 작업이나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지성의 역할이 중요함에 대해서는 M.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Eerdmands, 1994)를 보라.

힘으로 감사하며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신학자이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길만이 참된 신학자를 만드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1문답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 신학이다(1542년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요리문답 제1문답을 우리 교리문답이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며 놀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신학 연구와 신학 작업의 목적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신학은 (주지주의적) 지식이 아니라 경건이며 (지성적) 앎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특강〉

루터(1483-1546)는 신학 방법론으로 첫째 기도, 둘째 묵상, 세째 추구(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금욕적인 고난의 자세)를 이야기한다.[6] 루터는 시편 119편 강해에서 신학 연구의 正道인 이 3규칙을 발견했다(1539년).

성경은 영생과 의를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고 인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도록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는 피동적인 삶이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시편 119에서 '여호와여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119:12, 26, 64, 66, 68, 124, 135),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소서' (119:27, 34, 73, 125, 144, 169)라고 간구한다. 신학자는 이처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기도 가운데 더욱 더 깨닫기 위해 힘쓴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에 의한 깨달음이다. '성령의 은혜'는 문법, 수사학과 변증술을 대치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이것들을 정당한 위치에 앉게 한다. 기도와 땀의 수고, 성령의 사역과 인

6) 라틴어로는 "oratio, meditatio, tentatio"이다.

간의 사역은 상호 배제적이지 않다. 기도의 길로 이루어지는 신학공부는 사변이나 단순한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림이다. 결국 신학은 죄인인 인간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신학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데, 마음으로 묵상할 뿐 아니라, 구언이나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이 의도하시는 바를 읽고 반복하여 읽어서 열심히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외적인 말씀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외적으로 쓰고, 설교하고, 읽고, 듣고, 노래하고 말하게 하셨다. 기도나 묵상이 신령주의적으로 이해되지 않게 하려고, 그는 묵상에서 '외적으로'를 거듭 강조한다. 그는 묵상을 처음에는 '해석하다'로, 그리고는 '말하다'로 번역했다. 묵상은 인간이 자신 속으로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간다. 인간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말씀에 적셔진 마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간은 말씀에 그의 인격이 포섭되었으며,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구언이나 기록된 말씀과 결합되어 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는 고난받아야 한다. 고난(추구)은 묵상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는 영적이며 정치적인 세상성에 대한 투쟁이다. 제 일계명을 묵상하는 자는 수많은 神들과 主들에 에워쌓인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며, 말씀에 매달리게 한다. 경험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경험함이 신학자를 신학자로 만든다. □